사무직 여성 91년 봄 통권 4호

<짤막이야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은선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한 청년이 있었단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그렇듯이 청년 또한 이리저리 부대끼는 시간들 속에서 몇 번의 「사랑」이라는 이름을 뇌까려 보았지만 모두가 뜬 메아리처럼 잡히지 않는 무상에 불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이 분주한 토요일 오후를 정리하고 막 자리를 뜨려는 순간 ‘따르릉, 따르릉~’전화기의 벨이 요란스럽게 울려댔다. 뜻밖의 사람! 평소에 “그렇게 밉지는 않게 생겼군. 마음도 착할 것 같아. 그대로 요즈음 같은 세상에 내 차지까지 오겠어?”하고 일찌감치 포기(?)에 포기를 더했던 사람! 이렇게 만남은 시작되었다.

청년은 많은 생각을 필요로 했고 또한 고민했다.

청년의 십삼계명.

첫째, 그녀에게 부담가게 하지는 말아야지.

둘째, 한달에 한 번 정도는 꽃으로 선물해도 좋지 않을까?

셋째, 처음에는 조금 냉정하더라도 집까지 바래다 주는 것은 좋지 않아.

넷째, 내 말을 하기보다는 그녀의 말을 들어주어야지.

다섯째, 마음이 서로 좋지 않을 때는 일찍 헤어지는 것도 좋아.

여섯째,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행동으로 해야지.

일곱째, 그녀가 아플 때는 누구보다 먼저 내손으로 약을 사주어야지.

여덟째, 그녀뿐이 아닌 그녀 가족까지도 사랑해야지.

아홉째, 어른들께는 공손한 예절을 표해야지.

열 번째, 내가 잘못한 점들을 그녀가 꼬집어주기를 바라면서 이야기해야지.

열한번째,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아껴주고 싶어.

열두번째, 나와 그녀 모두가 바람직한 충고와 조언으로 서슴없이 다가설 수 있는 관계가 될 때까지 많은 것을 나누어야겠어.

열세번째, 그리고 그녀가 다른 사람들 속에서 나를 선택하게 만들어야지. 사랑하는 사람을 말이야.

이성(異性)이기보다는 그 사람 자체를 원함으로써, 최선의 상대이기보다는 절대적 상대로서, 한 순간의 사랑이기보다는 영원한 존경으로써 마음을 열어 간직하고 사소한 부분까지 배려를 아끼지 않으며 ‘사랑’이라는 표현에 서툴지 말아야겠지.

지금도 청년이 하루를 살아가매 힘든 일이 있어도 작은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단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느끼는 가깝고도 먼 거리감…. 생명이 약동하는 봄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랑=생명력=봄이라는 간단한 정의를 내리며 사람끼리의 순수한 사랑을 영양소로 먹어야 건강한 ‘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맥경화증에 대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간단한 예로 지금 주로 젊은사람에게 나타나는 동맥경화증을 생각해 봅시다. 사랑이 막힐 때 동맥경화증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세상의 지식들을 배우기 위해 10년 20년간을 학습, 연습, 훈련하는데 사랑의 연습도 결사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가족, 이웃, 절대자, 친구)을 부인할 필요가 없고 느끼고 표현할 수 있어야 건강한 정신을 갖은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숨통이 트이고 피가 돌고 건강한 생명력으로 살아갑시다. 자, 지금부터 연습!